

제일모직, 편광필름이 성장 모멘텀

CJ투자증권, 에이스디지텍 인수로 조기안정화 ... 세계시장 4조-5조원

CJ투자증권은 12월6일 제일모직이 에이스디지텍 인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편광필름 사업진출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<매수> 투자의견을 유지했다.

이희철 애널리스트는 “제일모직이 에이스디지텍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4조-5조원대로 추정되는 편광필름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현재 에이스디지텍은 오창공장 1호기에서 중형 편광필름을 생산중이나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고 약 508억원을 투자해 2호기 광폭라인을 건설중이며 향후 3호기 라인도 동일한 규모로 추가 투자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

이어 “에이스디지텍 인수로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예상되지만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신규 설비투자에 비해 기존기업 인수가 조기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”이라고 진단했다.

또 향후 디스플레이 소재부문을 강화하는 계기로 향후 전자재료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.

이희철 애널리스트는 “기존 메이저와 경쟁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IT소재 사업부문의 뚜렷한 성장동력원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06>